

다양한 상품개발로 소비를 확대 시킨다

□ 정리/김동진 기자



(주)체리부로식품 전경(충북 진천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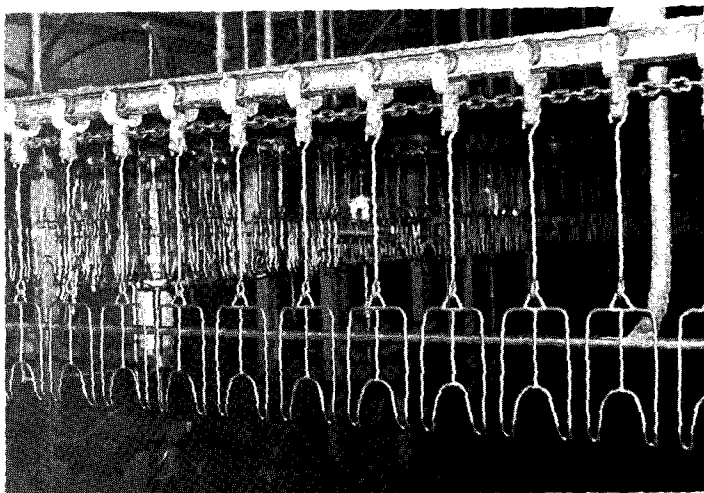
육 계산업의 국제적 기류 을 타고 소비시장을 확대하려 있다.
를 보면 개방화의 흐름 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어 가고 우리나라의 경우 계열회사

업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육계유통의 합리화로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방침아래 도계장, 사료, 생산자 중심으로 당면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일부에서는 개인주의 의식이 아직까지 잔존해 있고 계열화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순조로운 방향을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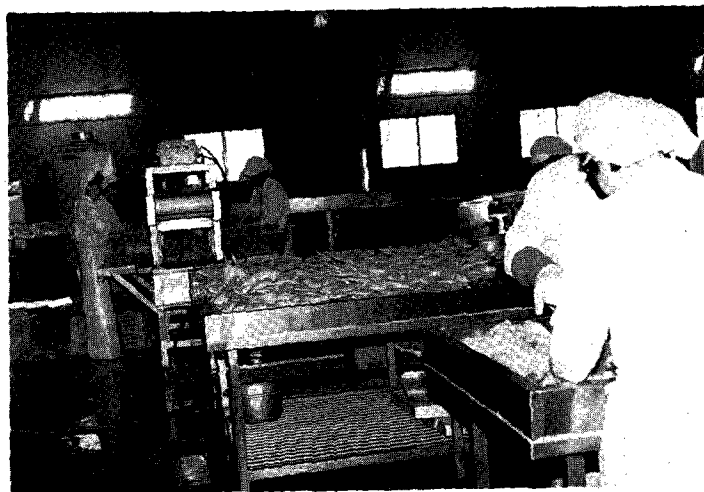
냉동육의 개방을 면전에 두고 가격과 제품에서 소비자들의 기호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국내 육계산업은 수입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생산자에게는 안정된 수익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위생적이고 믿을 만한 닭고기를 공급한다는 취지아래 도계장을 중심으로 계열화 사업에 착수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유일하게 다양한 상품개발로 소비자들과의 접근을 통해 유통의 합리화를 꾀하고 더 나아가 대일수출까지도 꿈꾸고 있는 (주)체리부로서식품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70년대부터 사료업계에 몸을 담으면서 육계산업의 흐름을 관망해온 김인식 사장은



△닭의 중량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샤클라인



△절단 및 발골을 하는 작업실

육계업의 국내 정착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현 육계업은 생산 원가를 낮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기를 맛있고 위생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육계업의 매듭을

풀어가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육계유통부분을 강조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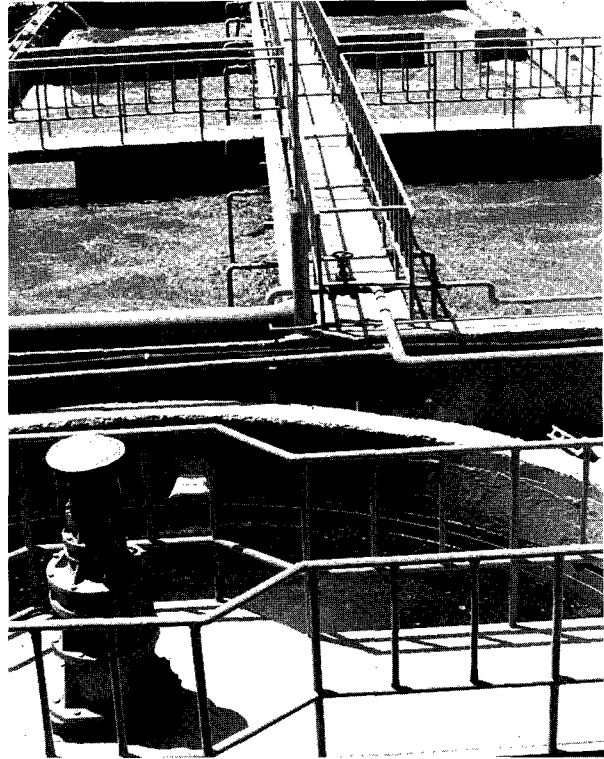
이처럼 닭고기의 차별화를 형성시켜 소비자들의 입맛을 찾아주는 유통라인을 중시하

며 계열화사업체로 등장한 (주)체리부로식품은 지난 6월 10일 가공공장 준공식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9,600평의 대지에 1,200평(사원주택, 부대시설 포함)의 건평을 자랑하며 대도시와의 교통망이 편리한 (주)체리부로 식품은 쾌적한 작업환경과 40~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원주택을 겸비해 복지시설에도 큰 배려를 했다.

또, 1일 도계능력은 5만수(6천수/시간)로 냉동, 냉장의 비축시설은 물론 1일 600톤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장을 갖춘 도계장이다.

앞으로 육계 유통의 확립을 위한 (주)체리부로 식품의 주된 사업내용은 노계처리사업, 육계계열화사업, 계육가공 및 수출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노계처리사업은 산란계와 육용종계 중 생산기간이 만료된 성계를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국내 양계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육계 계열화 사업은 효율적인 생산 및 유통산업의 정착으로 육계산업의 안정된 농가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계육 가공사업 및 수출사업은 고부가가치



△1일 600톤을 처리시킬 수 있는 폐수처리장



△협력농가와 신뢰를 쌓기위해 꾸준한 대화가 필요하다.

의 계육식품인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일본에 신선계육을 수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다.

도계시설에서 기존 도계시설과 다른 것은 기존에는 삼계 및 세미를 위주로 0.8~2.2kg인 닭을 도계하던 시설에서 보다 광범위한 도계시설을 갖추어 주로 육계 하이, 산란계 및 종계(단 삼계, 세미 제외)까지 도계할 수 있는 것으로 체중 1.5~3.5kg인 것에 역점을 두어 제품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또 탕적탈모라인과 내장적출라인을 완전 분리한 점이 특이한데 이는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을 위해서는 작업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를 분리해야한다는 김사장의 지론 때문이다.

특히, 위생육 생산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허파제거기를 설치함으로써 미생물 증식에 따른 닭고기 품질저하를 차단하고 있다. (주)체리부로식품은 지난 4월 인수한 종계장 운영과 함께 육계 완전수직계열화 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계약사육 농가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주)체리부로식품 준공식 장면

(주)체리부로식품은 사육수수료를 내세우기 보다는 사업설명회, 가공공장 견학 등을 통해 계열주체와 사육농가가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중반까지 50개 계약농가를 선정해 사업을 펼쳐갈 계획으로 2만수 규모 농가의 경우 월 15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있어 육계업의 직업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체리부로의 시설과 정책방향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의 현 문제가 생산과잉과 소비부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같은 계열업체들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육계유통의 확립을 위해 투자

의 폭을 넓혀가야될 것으로 보며 계열화에 참가한 생산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구조적인 모순을 찾아내어 단점을 없애고 생산자, 계열업체, 소비자들이 서로 동반자로서 보조를 맞춰가야 할 때인 것으로 보인다. **83**

